

소통·예술치유... '인문학 만찬' 열린다

인문지행 하반기 인문강좌 진행
11월말까지 6개 섹션 35개 강좌
신형철·최유준 교수 등 강의

통섭, 도시공동체 인문학, 소통의 대화변, 영화 인문학, 노년 예술치유인문학...

35개 다양한 영역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의 만찬'이 펼쳐진다.

시민인문학 공동체인 인문지행은 '2021무등인문도시 인문강좌' 하반기 일정을 오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2021 인문도시 광주 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문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반기 강의는 모두 6개 섹션 35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통섭, 가로지르기의 인문학'은 다양한 인문학 영역을 관통하는 인문적 가치의 본질을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영역적 한계를 넘어서 삶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자는 취지다.

강의는 문학(신형철 교수), 의학(김상용 의학박사), 음악(최유준 교수), 미술(윤익 아트광주21 총감독·이기모 ACC선임규레이터)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가로지르기가 펼쳐진다. 강좌는 총 8회로 구성되며, 오는 8일부터 11월 2일까지(화요일·수요일) 오후 7시부터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전일빌딩245에서 진행된다.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예술'에서는 광주 도시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무등산과 도시의 문화예술을 살펴본다. 무등산 역사성과 인물들을 돌아보고



신형철 교수 최유준 교수 윤익 총감독 조대영 칼럼니스트

도시와 문화예술의 상호관계, 광주의 땅이름이 지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이계표 호남문화원장, 양초롱 담양해동문화예술촌관장, 이준엽 호남문화연구원실장이 강사로 나서며 오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무등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단편소설, 영화를 만나다'는 단편소설을 읽고 이에 대한 영화를 감상하며 인문학적 사유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조대영 영화칼럼니스트가 강사이며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광주극장 '영화의집'에서 진행된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일명 '노년 예술치유 인문학'. 여기에서는 삶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자서전쓰기를 진행한다. 탄생과 성장, 성숙과 상처를 주었던 수많은 인간관계와 노동 그리고 성취 등을 자아라는 개념과 결부해 풀어낸다. 이 시간은 어르신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통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술

치유전문가 지도로 오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동구 자비신행회에서 진행된다.

대화법을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소통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대화는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박해웅 박사(소크라테스 대화법연구소장)가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에 진행한다.

마지막 섹션 '소외 너머, 희망의 인문학'은 명화 감상을 통해 치유와 희망에 대한 용기를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잃어버린 '나'의 이야기를 회복하고 함께 하는 관계에서 주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섹션 모집 정원이 마감될 때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사단법인 인문지행' 참조. 문의 062-229-068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페라 갈라 콘서트 '오페라로 사랑배우기 시즌2'가 4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모차르트·베르디·비제 오페라로 사랑배우기

빛소리오페라단 4일 광주아트홀

사랑을 주제로 한 오페라 갈라콘서트 '오페라로 사랑배우기 시즌2'가 4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사)빛소리오페라단이 준비한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벨리니, 베르디, 비제 등의 오페라 곡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오페라 '마술피리' 중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파, 파, 파 파파게나', '캐플렛과 폰테규기' 중 '아, 얼마나 여러번', '리콜레토' 중 '여자의 마음',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

을 지키고' 등이다. 현제명의 '춘향전' 중 '사랑가', '그리워 그리워'도 들려준다. 최덕식이 총감독, 박미애 연출이 참여했으며, 테너 박성원이 특별출연한다. 테너 장호영·이원용·김용덕, 바리톤 김종우·권용만, 소프라노 윤희정·임영란, 플루티스트 박지혜, 피아니스트 천현주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빛소리오페라단은 오페라 '마술피리', '버섯피자', 창작오페라 '꽃 지어 꽃피고' 등 작품으로 정기공연을 열었고 섬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순회·초청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왔다. 무료관람. 사전예약 필수. 문의 010-2228-704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송일준 초청 '인생은 여행이다'

광주문화재단 작은도서관
2~3일 인문학 강좌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 하반기 첫 번째 인문학 강좌가 2~3일 오전10시에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송일준(사진)이 '인생은 여행이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1회차는 '제주도 한 달 살기' 관련된 여행에 대해 알아본다. 송 씨는 최근 펴낸 '송일준 PD 제주도 한 달 살기'에 수록된 내용 중심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2회차는 '핑크피쉬-전라도 흥어 이야기'로 저자가 2018년도 광주MBC 사장 부임 직후 기획했던 11부작 다큐멘터리가 중심이다. 전라도



를 비하하는 단어로 폄하되고 있는 흥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흥어를 전라도 소울푸드로 재조명 시키기 프로그램이다. 한편 송일준은 1984년 MBC에 입사해 '출발새아침', 'PD수첩' 등을 연출했으며 광주MBC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광주대학교 석좌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광주 '7미 힐미' 방송 홍보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은 미식관광도시 광주 이미지 제고와 광주 대표음식 광주 7미 홍보를 위해 9월 한 달간 '7미 힐미' 특별코너를 광주 MBC 오매전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송출한다.

'7미 힐미' 특별코너는 무등산 보리밥, 광주 상추 튀김, 광주 주먹밥 등 광주 7미를 주요 소재로 하고, 무등산 생태힐링투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예술여행, 5·18 다크투어, 광주 미식의 역사 등 '광주다운' 주제로 광주 미식관광을 풀어내 미식관광도시 광주만이 가진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2일 방송될 '7미 힐미' 특별코너 1회에서는 웰빙푸드 '무등산 보리밥'과 광주 대표 생태힐링 여행지인 무등산 원효계곡,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 무등산 인근 힐링여행지를 연계한 미식관광코스를 선보이며, 늦여름과 초가을에 맞춘 힐링미식여행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7미 힐미' 특별코너는 총 4편이며, 방송이 종료된 후 광주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광주관광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코로나 시대, 예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극단 '우아' 2~5일 예린소극장
연극 '단칸방의 메데이아' 공연

광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극을 펼쳐온 극단 우아(대표 성화숙)가 코로나 시대 예술인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극단 우아는 오는 2~3일 오후 8시, 4일 오후 4시·7시, 5일 오후 4시 예린소극장(광주시 동구 공동 36-6)에서 연극 '단칸방의 메데이아'를 공연한다.

공연은 1인극 '메데이아'를 준비하던 두 배우 '창'과 '연'이 코로나 19로 폐쇄된 극장에 찾아오며 시작된다. '창'은 자신이 배우를 할 테니 '연'에게 관객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극을 선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배우이기에 서로의 관객이 되려 하지 않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1인극을 펼쳐나간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극장에서 2인극 같은 1인극이 시작된다.

제39회 월드 2인극 페스티벌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코로나19로 인해 갈 곳을 잃은



극단 우아는 오는 2~3일 예린소극장에서 연극 '단칸방의 메데이아'를 선보인다.

예술업계 종사자들의 애환을 묘사함으로써 '배우의 존재 이유'와 '생존의 현실'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무대와 객석을 비롯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출은 성화숙이 맡았으며 이호용·유우현·이사라·차한결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극단 우아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시도하

는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극단으로 남도록 '비밀의 화원', 풀 퍼포먼스 연극 '몽상가들'을 비롯해 '아름답고 스산한 그의 집필일기', '테이레시아스의 눈', '정의의 사람들', '내발은 환상적이야'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관람료 1만5000원. 인터파크티켓과 플레이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10-2970-0113. /전은재 기자 ej6621@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